

유교와 인격교육

이 기 동
(성균관대학교)

I. 서 언

유교는 입장에 따라서 유학이라고도 하고, 유도라고도 하며, 유교라고도 한다. 유교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적 성격을 표현한 말이고, 유학이란 말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학문적 성격을 표현한 말이며, 유도라는 말은 실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천적 입장을 표현한 말이다. 따라서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 유교란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체계이다. 그리고 배우고 가르침과 실천의 대상이 유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 된다.

유교는 공자가 堯舜 이래 전해 내려온 진리의 내용을 배워서 터득하였고, 다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전수하였으므로, 유교는 강한 교육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갖는다. 조선 시대의 成均館이나 지방의 鄉校가 모두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을 보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교의 교육적 특징과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것이 유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첩경이 되기도 할 것이다.

II. 두 사고 유형과 교육의 의미

유교는 공자가 개인적으로 일시에 만들어 낸 이론체계가 아니라 堯舜 이래로 전해 내려 온 정통사상을 계승하여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먼저 堯舜시대의 사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堯舜사상의 핵심은 중용사상이다. 따라서 유학사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용사상의 내용과 성립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옛날 동아시아 대륙에서는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의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이 있었다. 동부지방의 문화의 특징은 종교성이 강하여 하늘을 숭상하며, 인간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늘의 뜻을 묻는 점법이 발달했으며, 소박하고 순일한 것을 좋아하며, 합일성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 등인데, 이러한 동부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仁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仁은 원래 人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人은 원래 동이족 중의 일족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었다. 동부문화권의 사람들은 흑도라고 하는 검은 단일 색의 도자기를 만들었으므로 동부문화권을 흑도 문화권이라고도 한다.

한편 서부지역의 문화의 특징은 합리성이 발달하고 힘을 숭상하며, 분석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현실성과 인간의 육체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 등인데, 이러한 서부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知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서부문화권의 사람들은 채도라고 하는, 다양하게 채색한 도자기를 만들었으므로 서부문화권을 채도문화권이라고도 한다. 이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은 대치하여 투쟁하게 되었고 투쟁으로 말미암아 혼란하게 되었다. 이 혼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느 한 쪽의 문화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는 것이었다. 이 통일의 원리가 바로 中庸인 것이다. 중용사상의 핵심은 仁의 문화와 知의 문화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다. 이 통합은 평면적인 결합만으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혼연하게 융합되어야만이 가능하다. 仁의 문화와 知의 문화가 융합하여 성립된 당시의 중용사상의 특징은 仁을 안으로 하고 知를 밖으로 함으로써 완성되었다. 마치 복숭아나 살구가 안에 씨가 있고 밖에 肉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적인 삶은 仁에 의해서 영위되면서 외면적인 삶은 知的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중용사상에 입각한 삶의 내용은 마음 속에서는 남과 내가 하나인 세계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남과 내가 구별된 각각의 고유한 삶을 사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중용적 삶이 실현된 사회를 유교에서는 대동사회라고 한다. 대동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각각의 가정을 갖고 개별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구별하지 않고 다같이 존경하고 받들며, 나의 자녀와 남의 자녀를 구별하지 않

고 다같이 보살핀다. 대동사회에서는 시집가지 않는 여자가 없으며 직업이 없는 남자가 없다. 왜냐 하면 경쟁사회에서는 희망하던 남자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된 여자는 자존심이 상하여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대동사회에서는 다른 남자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오빠가 남보다 못하더라도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남자가 직업을 고를 때 있어서도 경쟁사회에서는 희망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 때 나머지 직업은 외면하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동사회에 있어서는, 한 가족이 같이 일을 할 때 능력있는 사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것처럼, 능력있는 자들이 스스로 힘든 일을 택하기 때문에 모두가 직업을 갖게 된다.

堯舜시대는 이러한 대동사회가 건설됨으로써 혼란이 극복되고 조화와 안정이 지속된 이상적인 시대이었다. 이상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양도하지 않고 가장 현명한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이다. 堯에서 舜으로 舜에서 다시 禹로 왕권이 이어질 때에는 이 이상사회는 지속되었으나, 禹가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인계한 뒤로 이 이상사회가 무너졌다. 禹는 서부족이었으므로 禹가 세운 夏의 정치와 문화는 서부 문화와 서부족의 가치관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동부족의 반발이 일어났고 그 반발세력을 결집한 湯에 의하여 夏가 멸망하고 殷이 건국되었다. 그러나 殷의 湯도 역시 왕권을 아들에게 인계함으로써 동부문화에 치우친 정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서부지역의 사람들의 반발이 생겨났고 그 결과 이 반발을 결집한 武王에 의하여 殷이 멸망하고 周가 건국되었다. 그러나 周의 武王이 다시 왕권을 아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번에는 다시 동부족의 반발이 거칠게 일어났으나 周代에는 철기가 발명되었으므로 탄압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반발도 더욱 커졌으므로 대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 한다. 이렇게 하고 보면 동아시아의 고대 사회는 동서의 항쟁이 계속되었던 역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춘추시대의 대혼란기에 출현하여 그 혼란의 극복을 시도하였던 공자는 그 혼란의 근본원인이 동서의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충돌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요순의 중용사상에서 구하였다.

중용사상의 핵심은 仁의 문화와 知의 문화를 조화시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仁의 문화에서 강조하는 삶은 도덕적 삶이고, 知의 문화에서 강조하는 삶은 육체적

삶의 충족이다. 이렇게 하고 보면 중용의 핵심적 내용은 도덕적 삶과 육체적 삶의 통일을 의미한다.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仁의 문화는 나중에 맹자의 성선설적 사고에 의하여 대변되고, 육체적 삶을 강조하는 知의 문화는 나중에 순자의 성악설적 사고에 의하여 대변된다.

성선설적 사고유형에서는 사람은 원래 착한 존재인데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교육은 이 착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성악설적 사고유형에서는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는 서로 투쟁하게 되고 따라서 혼란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성악설적 사고유형에서는 인간의 사회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악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악한 본성이 교정되어 나타난 것이 예절이므로 교육이란 이 예절을 확립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성선설적 사고유형에서의 교육은 결국 도덕적 삶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성악설적 사고유형에서의 교육은 예절바른 삶 즉, 윤리적 삶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윤리의 확립은 육체적 삶을 충족하는 방안이 되는 반면 도덕의 확립은 도덕적 삶을 확립하는 방안이 된다. 그러므로 완전한 교육은 이 두 교육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삶의 전체적 요소를 확립하는데 있다. 유교에서는 윤리적 삶의 확립을 위한 기능으로서 小學의 과정을 설정하고 도덕적 삶의 확립을 위한 기능으로서 大學의 과정을 설정한다. 유교교육의 최종목적은 이 도덕적 삶과 육체적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용적 삶이기 때문에 결국 소학과 대학이 하나로 이어져 통합되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정한다. 그리하여 육체적 삶은 도덕적 삶의 현실적 형태이어야 하고 도덕적 삶은 육체적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仁은 禮를 실천하는 근거가 되고 禮는 仁이 외부로 발휘된 형태가 됨으로써 하나로 통합된다는 논리구조를 갖는다.

III. 가정교육

교육은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학교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교육관이다. 공자는

가정교육의 여섯 가지 철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친다. 효도란, 부모의 사랑이 귀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 부모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위할 줄 모르면서 공부를 잘하여 높은 지위를 갖게 된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할 리가 없다.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공부를 못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효도는 어느날부터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남을 공경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최종목적은 도덕적 삶을 확립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식교육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부터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남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할수록 남을 무시하는 정책을 하여 많은 피해를 끼칠 것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남을 공경하는 태도나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셋째, 침착성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침착성이 없는 사람은 장차 교육을 받더라도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신의를 지키도록 유도한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은 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신의를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비결 중의 하나는 부모가 솔선하여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두루두루 동료를 사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급우를 무시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이 만약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가난하고 무능한 국민을 위한 정책은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착한 벼를 사귀도록 유도한다. 어린이는 친한 벼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여 착한 벼와 사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여섯 가지가 충분히 지켜질 때 비로소 학교교육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장래 공부를 잘 할수록 이웃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인격을 완성한다고 하는 교육 본래의 목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소학의 내용

유교사상에서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이상적·도덕적 삶을 근본으로 삼아 거기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육체적 삶을 영위함으로써 가능하지만,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은 먼저 현실적·육체적 삶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이상적·도덕적 삶을 확립하여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는 것이다.

현실적·육체적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등의 삶의 기본 조건들을 구비하고 인간사회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상적·도덕적 삶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도덕적 본질은 인식하여 밝힌 뒤에 그것을 실천하여야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을 下學, 形而下學 또는 小學이라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을 上達, 形而上學 또는 大學이라 한다. 그러므로 유교는 下學하고서 上達하는 학문, 形而下學을 하고서 形而上學을 하는 학문, 또는 小學을 하고서 大學을 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小學과 大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학의 성격과 교육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육체적 삶과 육체적 삶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모두 小學의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본다면 의학, 약학, 농학, 건축학, 의상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자연과학, 법학, 문자학, 윤리학 등등이 모두 소학에 해당될 것이지만 유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문자학과 윤리학이다. 상고시대부터 소학을 가르치던 학교와 대학을 가르치던 학교는 분리되어 있었다. 순임금시대의 下庠과 上庠, 夏代의 西序와 東序, 殷代의 左學과 右學, 주대의 虞庠과 東校가 그것이다. 중국 宋代에는 朱子和 劉子澄에 의하여 소학에서 가르치던 내용이 『小學』이란 책으로 편찬되었다. 『소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할 때, 혼자서 배불리 먹으려 하지 않으며, 손으로 집어먹지 않으며, 숟가락으로 밥을 다지거나 많이 뜨지 않으며, 뼈를 씹지 않으며, 먹던 고기를 접시에 올려놓지 않도록 가르친다.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하여 드리며, 아침에 문안인사를 드리며, 외출할 때 반드시 알리며, 돌아와서는 반드시 보고 겸 인사를 드리도록 가르친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먼저 기침소리를 내어 알리며, 문 밖에 신이 두 켄레 놓여 있을 경우 소리가 들리면 들어가지만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며, 문 안으로 들어설 때는 아래쪽을 바라보며, 문의 손잡이는 두 손으로 잡으며, 두리번거리거나 사방을 둘러보지 않으며, 들어갈 때 문이 열려 있으면 열린 채 놓아두지만 닫혀 있으면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 원래대로 닫도록 가르친다. 이상과 같은 일상의 생활예절 외에도 관혼상제 등에 관한 모든 의식과 절차, 사회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준수하는 행동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소학의 주요 내용이다.

인간의 예절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립되고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임금과 신하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과 아우 또는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 친구 관계의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예절의 근본원리는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원리로 귀결된다.

유학에서는 이것을 五倫이라 하고 그 내용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親,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義,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別,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에서는 序, 친구관계에서는 信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소학의 주요 교육 내용은 오륜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V. 대학의 내용

대학의 교육내용은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三綱領과 八條目으로 대표할 수 있다. 삼강령이란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의 세 강령을 말하고, 팔조목이란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여덟 조목을 말한다. 팔조목은 삼강령을 세분한 것이다. 삼강령 중 ‘明明德’은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고, ‘親民’은 타인을 완성하는 것이며, ‘止於至善’은 자기와 타인이 모두 완성됨으로써 도달되는 최고의 단계이다. 그리고 팔조목 중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은 삼강령의 明明德에 해당하고, ‘齊家’ ‘治國’은 ‘親民’에 해당하며, ‘平天下’는 ‘止於至善’에 해당한다.

그러면 먼저 ‘明明德’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德이란 자기의 본성을 왜곡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말한다. 사람의 본성은 마음 속에 존재하는 ‘삶의 의지’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명활동이 이 본성의 작용에 기인하며, 약한 자를 동정하고 폭력을 미워하는 등의 인간의 원초적 감정도 모두 이 본성이 발로된 것이다. 이 본성의 작용은 잠시의 중단도 없이 지속된다.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원천인 본성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개별적인 동시에 전체적이다.

이 본성의 개별성을 가리켜 性이라 하고, 전체성을 가리켜 天命이라고 한다.

따라서 德이 있어 본성을 실천하고 천명을 따르는 사람은 전체의 차원에서 개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德이 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모든 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남과 경쟁하지 않고 화합하므로 긴장이 없이 느긋할 것이며, 남을 사랑하는 만큼 남에게 사랑과 도움을 받을 것이므로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며,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늙는 것이 성장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늙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개인의 죽음이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한 현상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약육강식의 투쟁장소인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조화를 이루는 방법임을 알게 되어 비극으로 보이던 이 세상을 낙원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德을 표현할 때 ‘밝은’이란 수식어를 사용하여 ‘밝은 德’이라 하였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생겨나고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서 욕심이 생겨나며 이 욕심에 빠짐으로써 밝은 德을 상실한다. 지하수가 솟아날 때 진흙이 섞여 들어 흙탕물이 되는 경우에 비유한다면, 지하수는 본성에 해당되고, 진흙은 이기적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계산에 해당되며, 흙탕물은 욕심에 해당된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본성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삶은 전체적·도덕적 삶에서 벗어나 개체적·육체적 삶으로 전락한다. 욕심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전체성을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德이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남들과의 끝없는 경쟁 속에서 계속 긴장하며, 하는 일마다 실패를 되풀이하며,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비극의 장소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삶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행복한 삶은 육체적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적·도덕적 삶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므로 욕심에 빠져 상실하였던 밝은 덕을 다

시 밝히는 것, 즉 ‘明明德’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明明德’은 ‘修身’으로 구체화된다. 몸을 닦아 욕심을 따르지 않고 본성을 실천하고 天命을 따를 수 있어야 밝은 덕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몸 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본성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修身의 내용은 욕심을 제거하고 바른 마음으로 채우는 ‘正心’으로 구체화된다.

‘正心’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성에서 발휘되는 순수한 마음을 확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욕심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전자에는 순수한 마음을 성실하게 붙드는 ‘誠意’의 방법이 있고, 후자에는 순수한 마음이 발휘되는 순간에 아예 생각이나 계산을 하지 않도록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持敬’의 방법이 있다. 먼저 성의의 방법은 본성에서 발휘되는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방법을 말한다. 악취를 피하는 것처럼, 좋은 경치를 좋아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발휘되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誠意의 공부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지경의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욕심은 순수한 마음이 발휘될 때 인간의 의식이 이기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순수한 마음이 발휘될 때 의식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계산하는 등의 일체의 의식을 잠재우고 경건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욕심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주역』에서는 “敬을 가지고 마음 속을 곧게 간직한다”고 하였고 공자는 “敬虔한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자신을 수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敬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에 잘 전수되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靜坐法이 이에 속하고 불교의 參禪法이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공부는 쉽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공부가 요구된다. 靜坐나 參禪 외에도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기』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레를 타고 갈 때 수레에 방울을 매달아 놓고 그 방울소리에 귀를 집중시킨다든지, 걸어갈 때 허리에 찬 패옥의 소리에 귀를 집중시키는 방법 등이 정신집중법에 속하며,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靜坐法이나 마음을 집중하는 敬工夫 등이 모두 ‘持敬’의 방법에 속한다. 『대학』의 팔조목에서는 ‘誠意’와 ‘持敬’ 두 방법 중에서 ‘誠意’만을 언급하였다.

순수한 마음을 확충하는 방법과 욕심을 억제하는 방법은 주관적이어서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情이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인 性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직접 알아버리는 것이다. 그 性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그 성을 따르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性은 나의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기가 어렵다. 마치 내 몸 속에 있는 위장이나 내장이 알기가 어려운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에 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남의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의 구조와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같기 때문에 남의 몸 속에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 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 이외의 모든 것도 다 性에 의하여 유지되어가고 있으며 그 性은 또 나의 性과 같기 때문에, 다른 것을 관찰하여 그 속에 있는 性을 헤아려 안다면 그것을 통하여 나의 性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格物致知이다. 格은 조금 '이른다'는 뜻이고 物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格物이란 나 이외의 다른 것에 나아가 그것을 관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致知란 知 즉 앎을 이룬다는 뜻인데 앎의 대상은 性으로 봐야 하므로 致知란 性을 아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보면 格物致知란 다른 것에 나아가 그것을 관찰하여 性을 아는 상태에 이룬다는 뜻이 된다. 욕심을 억제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식에 해당하는 사고력·판단력·분별력·지각력 등을 잠재우는 것이 주 내용이 되었지만 이 격물치지 공부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이 의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이 格物致知工夫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로 五經이다.

詩 經

詩經은 공자가 노나라에 전해져 오던 삼천여 편의 옛 시를 근거로하여 중복된 것이나 합당하지 않은 것 등을 빼고 새롭게 편찬한 305편의 시집을 말한다. 시의 체제는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민요에 해당하는 風과 조정에서의 공식행사 때 사용하는 雅와 왕실에서 조상에 제사지낼 때 그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인 頌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시인의 심정을 직설적으로 읊는 賦와 시인의 심정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법으로 표현한 比, 그리고 다른 사물을 보고 일어난 느낌을 읊는 興의 세 요소로 되어 있다. 시는 형식적으로 보면 風이 제일 많고 내용면에서는 興이 제일 많다.

興으로 되어 있는 시의 내용은 다른 생물체의 삶의 모습이나 다른 물체의 존재형태를 보고 거기에서 느낀 것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내용은 격물치지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학 물리학 동물생태학 문화인류학 등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 분야도 앞으로는 格物致知의 방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禮 記

동식물 등의 삶의 방식을 관찰하여 그것을 통하여 性을 파악하는 格物致知의 방법 중 가장 탁월한 방법은 聖人の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聖人の 삶은 모두 性에서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聖人の 삶을 분석하여 그 삶의 원리를 파악하면 그것이 바로 性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인의 삶의 방식은 대단히 중요한 학문의 대상이 된다. 이 聖人の 삶을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것이 『禮記』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예기』는 공자의 삶의 방식을 중심으로 후대에 기록해 놓은 것이므로 공자가 공부했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자가 공부했던 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례』와 『의례』도 함께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예기』와 이 『주례』 및 『의례』를 합하여 유학에서는 삼례라고 한다.

格物致知의 대상으로서의 예는 예를 통하여 性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배워 그 예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예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의 정신을 아는 것이다. 林放이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물었을 때 “크도다 물음이어”라고 하여, 질문의 내용을 높이 평가한 것은 그 질문의 내용이 예의 정신을 묻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는 성인의 일생동안의 삶의 형식이기 때문에 무한히 복잡하지만 그 정신을 추구하면 대체로 다섯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로 수렴된다.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는 계급적인 모든 상하관계를 포함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이는 선배와 후배의 관계와 같은 비계급적인 연령별 상하관계를 포함한다), 친구관계의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다섯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親, 임금과 신하관계에서의 義, 남편과 아내관계에서의 別, 형과 아우의 관계에서의 序, 친구관계에서의 信이다. 『중용』에서는 이 다섯가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도리를, 모든 인간관계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다섯가지 도리라는 의미

로 ‘五達道’라 하였다.

이 五達道의 근본내용은 남과 내가 한마음인 상태를 실천하는 도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오달도는 性을 따르는 길이요 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도인 것이다. “사람이 仁하지 않으면 禮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공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근본정신을 추극해 들어가면 결국 性에 귀결되기 때문에 예를 통해서 性을 파악할 수 있고 仁을 알 수 있으므로 예를 공부하는 것은 格物致知 공부의 핵심이 된다.

예를 공부하여 格物致知를 완성하였다면, 그리하여 性을 실천하고 天命을 실천한다면 이제 더 이상 예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 예를 의식하지 않고 무심히 性을 따르고 天命을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예인 것이다. 이 경우는 예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가 된다.

書 經

書經은 상고시대 唐나라의 임금인 堯가 다스리던 唐에서 비롯하여 周代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聖王들과 賢相들의 政法上의 발언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聖王이나 賢相은 하늘의 뜻을 대행하여 혼란한 이 세상을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원래의 모습대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성왕이나 현상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書經은 性을 알고 天命을 알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격물치지의 내용이 될 수 있다.

春 秋

春秋는 원래 노나라의 역사서이었으나 공자가 춘추에 있는 기록 중에서 隱公부터 哀公까지 12公 242년간의 내용을 독자적인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필삭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춘추이다. 춘추의 내용은 주로 제왕들과 고관들의 언행을 기록하고 거기에 평가를 내린 것이다. 춘추시대의 제왕들이나 고관들은 그 이전의 聖王이나 賢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이 하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따라서 춘추시대의 정치형태를 書經의 내용처럼 그대로 格物致知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하늘의 뜻이 실현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변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공자가 춘추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일이 변별해 놓은 것이 바로 춘추이다. 공자는 하늘의 뜻에 맞게 처해진 행동과 그렇지 않

은 경우를 변별하고 전자의 경우를 禮, 후자의 경우를 非禮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춘추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자가 변별해 놓은 기준에 따라 하늘의 뜻과 하늘의 뜻이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춘추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격물치지 공부의 내용이 된다.

周 易

周易을 공부하는 것은 욕심을 억제하는 방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격물치지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이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과 같은,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경우에는 聖人の 삶의 방식인 예를 배워서 따르면 되지만,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경우에는 예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당황하고 주저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나의 性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性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周易의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周易의 점을 쳐서 나오는 卦의 지시를 따르면 그것이 해결된다. 왜냐 하면 점을 쳐서 나오는 卦는 性이 지시한 것이고 그 性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상황에서 행동해야 할 원리로서의 卦의 지시를 읽으면 그것을 통하여 그 상황에서의 性의 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卦의 지시를 읽으면 또 그것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性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卦를 자꾸 읽어가다가 보면 결국 모든 상황에서 작용하는 性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卦를 뽑지 않고도 그에 해당하는 卦를 알고 따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공부가 더욱 숙달되면 이제 性의 작용 그 자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卦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무심히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周易은 性을 알고 性을 실천하며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공자는 이 周易에 대해서 특히 많이 공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기』에서는 공자가 주역을 많이 공부하였기 때문에 주역을 묶은 가죽 끈이 세번이나 끊어졌다고 하였다.

수양철학의 목적이 性을 알고 하늘과 하나가 되어 하늘의 입장에서 하늘의 작용

을 실천하는 데 있다면, 이 周易의 공부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자는 “몇년 더 공부하여 50세가 되었을 때 周易을 다 배워서 알면 인생에 있어서 큰 잘못이 없을 수 있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는 실제로 50세가 되었을 때 周易의 공부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50이 되어서 天命을 알았다”고 한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격물치지와 誠意 持經의 공부를 하여 수양이 완성되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사라지고 순수한 본심이 가득찬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의 마음에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발휘되기는 하지만 의식에 의하여 조절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는 인간의 본성이 자연 그대로 발휘되기 때문에, 배고프면 알맞게 먹고 잠이 오면 알맞게 자는 등 스스로의 삶에서는 저절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의식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양이 완성된 聖人の 마음에는 욕심은 사라지고 없지만 의식의 작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발휘될 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순수한 마음이 발휘될 때 의식은 남을 나처럼 생각하여 아끼고 사랑하는 작용을 하도록 유도한다. 남과 내가 한마음이 되는 것이 仁이고, 실제로 남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仁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마음에는 仁은 있지만 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聖人の 마음에는 仁도 있고 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仁은 어린이의 마음과 같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仁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다. 마음은 항상 어린이처럼 순수하여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한 “哀而不傷”의 경지가 바로 이것이다. 즉 슬퍼하는 것은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상처가 나지 않는 것은 어린이의 마음같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수양철학을 하여 仁을 회복하고 天命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모든 고통과 갈등을 극복한 공자는 여전히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天命의 입장에서 남이 남이 아니라 나로 바뀌었고 남의 고통과 갈등이 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親民이 된 입장이고,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수양하여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한

다”는 것이다. 仁의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 공자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때의 남이란 자기로 바뀐 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仁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남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

수양이 완성된 공자의 관심은 자연히 남을 구제하는 것에 집중되는데 공자 스스로가 터득한 수양방법이 학문이었으므로 남을 구제하는 방법 역시 학문적인 방법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공자는 사설 학당을 개설하여 사람들을 교육시키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모든 백성을 다 교육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치적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50세에 天命을 알고 난 공자는 모든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에 많은 학교를 짓고 많은 백성들을 동시에 교육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는 노나라의 임금을 찾아가 정치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실지로 정치에 참여한다. 공자가 노나라의 정치에 참여하자 공자의 역량에 힘입어 노나라는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갔다. 노나라의 발전을 시기한 이웃 제나라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女樂을 보내왔고 노나라 조정에서는 이를 감상하기 위하여 3일간이나 조회를 열지 않았다. 이를 본 공자는 노나라에서는 뜻을 실현할 수 없음을 알고 사표를 내고 다른 나라를 찾아간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공자가 정치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찾아온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공자를 회유한 일도 있다. 그러나 공자의 뜻은 하늘의 뜻을 실현하여 인민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지위만을 차지하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그 회유를 뿌리치곤 한다. 공자는 거의 18년간을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하를 돌아다녔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의 인민을 다 구제하는 것이 공자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인민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시대에도 계속 인민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의 인민을 다 구제할 수 없다면 다음에 올 인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기르고 저술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의 제자를 모아 가르침을 완성하고 서적을 정리하였다. 5년 가량이 지나 이 사업이 완성될 무렵 공자는 생을 마감하였다.

‘明明德’과 ‘親民’이 되어 나와 남이 일체가 되고 이 세상에 진리가 실현되어 일체의 갈등이 없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至善’의 상태이고 이 ‘至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止於至善’이며 ‘平天下’이다. 역사적으로는 요순시대에 실현되었던 대동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유교교육의 최종목표는 바로 이 ‘至善’의 상태를 이루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고, ‘平天下’를 실현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대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적·점진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용』에서 설명하는 철학적·종교적 방법이다.

[정치적·점진적 방법]

공자는 춘추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혼란을 극복한 이론이 있었다면 그 이론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는 은나라 말기이었고 그 혼란을 극복한 것이 바로 周公의 예치사상이었다. 따라서 공자는 주공의 예치를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논어』 팔일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하나라와 은나라의 그것을 거울삼아 만든 것이므로 가장 찬란하다. 따라서 나는 주의 것을 따르겠다.”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공자에게는 주대의 예치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였고 그럴수록 그 예치를 실현했던 주공을 그리워하였다. 공자가 『논어』 술이편에서 “나는 몹시 쇠약하였다. 주공을 꿈에서 뵈지 못한지도 오래되었다”고 술회하여 주공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란을 극복하여 안정으로 이끌었던 시대는 은의 탕, 그리고 주의 무왕과 주공이었고 그 시대가 소강시대이었으므로 공자가 추구하였던 사회적 안정은 우선 소강사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강사회는 이상사회가 아니다. 이상사회가 무너진 뒤 혼란해진 사회를 극복한 것이 소강사회이며 그 혼란을 극복한 원리가 禮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상

사회는 어디까지나 요순시대의 대동사회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주공의 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것은 그것이 최종목표이었던 것이 아니다. 소강사회의 실현은 대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대동사회가 무너지고 소강사회가 출현하였으며 소강사회가 무너지고 춘추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춘추시대가 대동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강사회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실현하고자 했던 주의 문물은 대동사회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순임금의 음악에 대해서는 “착함을 다했고 아름다움을 다했다”고 한 반면 무왕의 음악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은 다했지만 착함은 다하지 못했다”고 한 까닭도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혼란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므로 각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할 때 혼란은 극복된다. 외형적으로 각각의 구별성을 지키는 것이 예이기 때문에 예를 실현하면 혼란이 극복된다. 이 예의 실현을 통하여 질서가 회복된 사회가 소강이다. 구별성을 강조하는 예는 각각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다. 사람이 각각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라면 본질적으로 인간사회는 모두 남남끼리 모여 사는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사회는 남과 내가 서로 경쟁함으로써 혼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혼란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윤리가 예이며 이 예가 실현된 사회가 소강이다. 그러므로 소강에서의 예의 실현은 긴장을 동반한다. 본질적으로는 남과 투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쉽지만 그렇게 하면 모두가 희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예이므로 예를 지키는 것은 긴장이 요청된다. 이 긴장은 짧은 시간 동안에는 지속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사회의 안정은 긴장이 없는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仁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 仁을 회복하면 남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남과 남과 투쟁하지 않아야 하는 당위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예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긴장상태가 없어지고 따라서 사회의 질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仁이 회복된 사회가 대동사회이므로 소강사회를 회복한 뒤에는 대동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강을 거쳐 대동에 이르는 과정은 禮를 거쳐 仁에 이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강이 외형적으로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대동은 외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면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태이

다. 그러므로 대동은 소강의 단계를 거쳐서 도달되는 단계이지만 대동의 상태가 되어도 외형적인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소강의 상태가 소멸하지 않고 거기에 포괄된다.

공자사상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 이상사회의 건설에 관한 이론을 가장 완벽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修己之學으로 개인적 평화를 얻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수양을 통하여 초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많지 않다. 공자는 가장 원만한 개인적 수양이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혼란한 시대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는 데 그 위대성이 있다. 공자가 세계평화를 위해 돌아다닐 때 隱者들이 비웃었던 것은 이 차이 때문이다. 공자의 노력에 대해서 隱者들은 어차피 실패할 것을 알면서 부질없이 헛수고만 하고 있다고 비웃었지만 공자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 仁이 몸에 충만하여 밖으로 퍼져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마치 탈선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줄 지 안들어줄 지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계속 설득하는 것과 같다. 또 이 세상이 구원되고 안되고의 결과는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세상이 구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월권이 된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하늘에 맡겨야 한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하늘의 작용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은 결과에 상관치 않고 오로지 이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따름이다. 또 당시에 나타나 결과만 보면 공자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긴 시대를 통관해 보면 공자의 노력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의 사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공자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 · 종교적 방법]

이상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공자의 정치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잘못된 요소를 하나하나 바로잡는 방법이었다. 잘못된 나를 바로잡고 잘못된 가정과 사회를 바로잡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고 잘못된 세계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문제

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직접 해결하는 직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화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은 두 가지 해결 방법 중의 하나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어린 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다가 팔이 하나 떨어져 속이 상해 울고 있다고 하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인형을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어른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인형놀이가 필요없고 따라서 인형의 팔이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방법 중에서 전자의 방법을 정치적 방법이라 한다면 후자의 방법은 철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방법으로 인형의 팔을 바로잡아 놓더라도 다음에는 다리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철학적 방법을 통하여 문제 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중용』 제1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회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中이라고 하고 그것이 발휘되어 모두 외부의 상황에 알맞게 나타난 상태를 和라고 한다. 中이란 천하의 큰 뿌리이고 화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고 통하는 실천원리이다. 이 중과 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중용』 제1장).

여기서 말하는 中이란 性을 말한다. 性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를 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性은 내 마음의 뿌리이고 내 마음은 나의 존재의 본질이므로 性은 바로 나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性을 중용에서는 천명이라고 했다. 천명이란 이 우주만물을 운행해가는 작용이므로 性이 곧 天命이라는 말은 나의 존재의 본질은 우주만물을 운행하는 작용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작용이고 만물도 본질적으로 하늘의 작용이므로 만물과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나의 몸이 나의 본질로 생각하여 나의 몸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면 나의 몸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마음은 나의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하는 몸의 부속물이 된다. 즉 몸이 主가 되고 마음이 從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性이 나의 본질임을 알아서 性의 작용대로 산다면 性이 主가 되고 마음이 主가 되며 나의 몸은 마음을 따라서 실천하는 從이 된다. 전자와 후자는 존재구조가 서로 뒤집혀 있다. 후자가 인간 존재의 본래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라면 전자는 뒤집혀진 모습이다. 마치 물구나무를 서 있는 것과 같다. 물구나무를 서 있으면 땅이 머리 위에 있고 하늘이 발 아래

에 있다. 하늘과 땅이 뒤집혀 있고 만물이 모두 거꾸로 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和를 이루어 性의 작용대로 살고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면 거꾸로 서서 살던 사람이 바로 서서 사는 것과 같이 된다. 하늘이 머리 위에 있고 땅이 발 아래에 있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고 만물이 제대로 자란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몸을 위주로하여 살 때는 이 세상을 부분의 입장에서 부분만을 바라본다. 죄없는 사슴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자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나 天命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사슴은 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자가 일정량을 잡아먹지 않으면 수가 불어나서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자는 사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되면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며 낙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은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공자는 그의 수제자인 안연의 仁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서 다시 밝히고 있다.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니 하루만이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논어』 안연편).

공자는 언제나 제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제자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하였다. 그러므로 수제자인 안연의 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답변하였을 것이다. 자기를 극복한다는 말은 육체적 욕구에 따라 살고 있는 자기가 本性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거꾸로 된 자기를 바로세운다는 말이다. 그리고 예로 돌아간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남과 조화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보면 극기복례란 바로 치중화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하루만이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거꾸로 된 자기가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순간에 바로 不仁하게 보였던 이 세상이 원래의 仁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되면 이 세상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이미 바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정치적 방법에 비해서 철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철학적 방법을 통한 해결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형의 팔이 떨어져 울고 있는 어린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이의 마음을 어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방법을 써야 한다. 부러진 인형을 하나하나 고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진적으로 철학적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세상을 이상세계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중용적 입장에서 이 두 방법을 적절히 조화롭게 쓰는 것이다.

VI.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의 교육적 특징은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유교교육의 결과 인격이 완성되면 육체적 삶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과 갈등하지 않고 느긋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모든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늙고 죽는 인생의 숙명이 기쁨으로 충만되고, 이 세상이 낙원으로 변모함으로써 행복한 삶이 획득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고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어 환경도 보전되는 이상적 사회가 건설된다. 그러나 유교교육은 그 교육방법과 제도가 농경사회에서 시행되던 것이었다. 당시는 인격을 닦는 한가지의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사회이었다. 그러나 현대는 산업사회이며 정보사회이다. 직업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기술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하고 바쁜 사회에서는 옛날과 같은 방식의 교육방법은 현실성이 없다. 전통적인 유교교육은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한문이라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유교교육 방식은 가치는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유교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 가치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 한계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교의 교육내용에 대한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번역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된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바쁜 가운데도 누구나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간략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일정 기간동안 연수교육을 통하여 그 대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

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독교의 교육방법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이 바로 유교교육의 현대화 작업이 될 것이다. 유교의 교육은 그 현대화의 여하에 따라 부활의 가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